

## 推 薦 辭

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이 세계는 急激한 變化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. 理念 對立에 바탕한 기존의 질서가 와해되고 經濟力을 中心으로 새로운 國際秩序가 胎動하고 있습니다.

科學技術의 革新은 우리들 삶의 모습 自體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. 이 모든 變化中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情報化社會로의 發展입니다. 우리는 지금 이른바 ‘제3의 물결’ 이라는 정보화혁명의 큰 흐름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.

이 變化에 얼마나 能動的으로 對處하느냐가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, 情報化는 우리 經濟와 社會는 물론 삶의 變化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.

세계 각국이 정보화의 促進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산업의 發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

우리나라도 社會 各 分野에 걸친 과감한 情報化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, '80年代를 통해 통신과 放送網 등 정보유통의 기본적인 하부구조를 꾸준히 정비해 왔습니다.

情報產業 分野 또한 눈부신 發展을 거듭하여 우리의 산업생산과 輸出은 물론 技術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산업으로 그 位相을 확고히 세웠습니다.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는 그 기술력이나 생산기반 面에서 세계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.

그러나 우리가 거둔 이 빛나는 成果에도 불구하고, 우리나라의 정보화와 정보산업의 앞날에는 크게 어려운 과제들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

이 분야의 기술혁신 속도가 加速化되면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날로 擴大되고 있는 反面, 이 산업에 대한 후발국의 積極적 參與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던 하드웨어 부분의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.

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산업의 새로운 中心分野가 되어야 할 소프트웨어 부문은 아직 유치단계에 머물러 있고, CATV, 위성통신 등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정보통신망의 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.

정부는 이 모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, 정보화의 촉진과 그 바탕이 될 정보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 新經濟 5個年 計劃의 일환으로 「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 발전계획」을 수립·추진하고 있습니다.

새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이 計劃에 따라 대형컴퓨터·ATM교환기·멀티미디어·CATV기기·액정소자 등에 관한 첨단기술이 개발되고, 종합유선방송·위성방송 통신사업·제2이동통신 등 새로운 정보서비스가 도입될 것입니다.

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등 情報處理産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. 아울러 무역·유통·업종별 VAN 등 산업정보화가 '90년대 중반까지 실용화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사업과 함께 공공행정과 국민생활 부문의 정보화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. 또한 인력양성과 정보처리산업단지 조성,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의 구축, 표준화 등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이 모든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「情報化促進基本法」을 제정할 것입니다.

우리의 정보화와 정보산업의 앞날을 가늠할 이 중요한 시점에 발간되는 이번 「情報産業年鑑」은 새로운 方向으로 나아가는 정보산업의 발전에 온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.

아홉번째를 맞는 「情報産業年鑑」의 발간을 위해 노력하신 코리아 헤럴드·內外經濟新聞社, 그리고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1993년 9월

商工資源部長官 金 喆 壽

